

# 사회극을 통한 애착유형 및 대인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f Attachment Styles and Personal Relations' Variation through the Sociodrama

한양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석사 이은하

한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이정숙

Dept.of Home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Master : Eun-Ha Lee

Dept.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Associate Prof. : Jung- Sook Lee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measure variations in attachment styles and personal relations through the Sociodrama. There were three purposes in this study. The first was to verify the continuance of attachment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The second was to find the difference of personal relations and self-esteem according to the different attachment styles. Finally, the third was to prove the therapeutic effects of sociodram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In terms of attachment style, 19% of the subjects were insecurity style, 9.5% avoidance style, and 74.1% security style.
2. The contents of Sociodrama were the daily happenings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 children and among siblings and friends. Every subject said that the Sociodrama helped him to shape his internal self, to understand others, and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parental roles.

3. The avoidance group became insecure after the Sociodrama because of their distinctive traits. The secure feelings of security group also decreased due to their developmental character-individuation.
4. The comparison of the two post-tests revealed that the attachment style of the avoidanace group has changed to be more secure. The increase in the degree of closeness with parents was observed as well.
5. The Sociodrama is assumed to be effective in the changes of adolescents' abnormal and insecure attachment and personal relaitons into a normal and secure state.

In conclusion, results of the study verified this assump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sociodrama and it's longterm effects.

## I. 서론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최초로 맺는 사회적 관계는 부모 자녀간의 관계이다.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인 애착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들을 통해 그 사실이 증명되었다. Bowlby(1969)나 Erikson(1963)은 유아의 초기 애착은 지적발달이나 사회성 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으며, Ainsworth나 Blehar, Lieberman(1977)은 불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경우에는 많은 문제행동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Esterbrook과 Lamb(1979)은 모자녀간의 애착의 질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최근 연구에서는 애착관계가 아동기, 청년기, 성인기까지 전생애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Bowlby, 1969 ; Wynne, 1984).

즉, Bowlby(1973)는 양육자와 친밀한 애착관계를 맺는 데 실패한 유아는 성장한 후에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인 유대관계를 맺는 측면에서 다소 적응력이 미약한 경향을 나타낸다고 발표하여, 초기 애착관계가 가족외의 상황이나 훗날의 대인관계에 대한 원형을 제공한다고 결론지었다.

그 외 성인 애착유형에 초점을 맞춘 여러 연구(Levy와 Davis: 1988, Feeney와 Noller: 1990, Hazan과 Shaver: 1987)가 있긴 하지만 대다수가 국외 논문이며,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국내적으로 청년기나 성인기 애착에 초점을 맞춘 논문은 아직도 미비한 상

태이다.

초기 부모-자녀간의 애착등 가족간의 문제와 개인, 대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극을 제시할 수 있는데, 사회극(Sociodrama)은 자신의 문제를 말로 표현하는 대신 자발적인 행동으로 그 문제의 상황을 표현하는 즉흥극이라 정의되는 정신치료극(Psychodrama)이다.

사회극은 자신의 문제해결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치며, 궁극적으로 가정내 문제 해결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극은 가정내 부모-자녀간의 애착의 문제로 인한 개인의 자아개념 문제 및 타인과의 관계문제를 개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극이나 정신치료극 또한 가정학에서 연구된것은 최근의 일이며, 아직도 연구해야 할 많은 부분을 남겨놓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기 애착의 유형을 살펴보고 그들의 대인관계를 살펴보고 그 유형별 차이를 알아봄과 동시에 이들에게 사회극을 통해 청년들의 심상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효과를 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사회극

사회극(Sociodrama)이란 그룹간의 통합적인 사상이나 관계를 다루는 심오한 행동방식으로 정의되며 (Moreno, 1946), 자신의 태도와 느낌의 정당성을 다

른 사람들로부터 찾으려 함에 따라 집단내에서의 상호느낌과 서로의 관계를 탐구하고 조사하는데 도움이 된다(Moreno, 1960 ; 김유광, 1991). 또한 사회극은 개인적 카타르시스보다 단체적 카타르시스를 추구하고, 집단의 역할을 전형화시키면서 일개인의 자발성은 활발하게 되고 인간사이에 화해를 가져오게 하는 원천이 될 뿐 아니라(김희경, 1990) 주인공에게는 개인 정신치료의 성격을 띄며 동시에 집단구성원들에게는 상호관계 및 이해를 할 수 있는 자아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이정숙, 1991).

사회극은 그룹간의 가치와 편견이 실제 다루는 주제이며, 사회적 문제와 사회적 카타르시스에 목적을 두고 있다(Moreno, 1937). 결국, 사회극은 개인의 문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집단적 주제를 밝히고자 하는 정신치료기법의 한 유형이며 정신치료극의 한 파생물이기 때문에 동일한 맥락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극의 개념을 좀더 명료화 하기 위하여 정신치료극의 개요와 그 효과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921년 Moreno에 의해 창시된 정신치료극은 자발성과 창조성의 이론을 중심으로 지금-여기서(Here and now)의 원칙하에 진행된다.

정신치료극의 구성요소로는 주연, 연출가, 보조자아, 관중, 무대가 있고 정신치료극 과정은 행위실천의 과정으로서 준비과정(Warm-up), 행동단계(Acting-Out), 공유단계(Sharing)의 과정을 주로 거치게 되며, 행위실천의 적용으로서 전문적인 기술과 주장훈련, 역할 놀이, 자발성 훈련등이 있다.

이러한 정신치료극의 방법이 적용되는 영역은 정신건강 분야로서 종합병원, 개인병원, 낮병원 위기치료 상담실, 알콜 및 마약 중독 프로그램, 치료적 공동체 등 여러 상황에서 모든 전문가들이 정신치료극적 방법을 치료적 방법으로서 사용하고 있으며 더욱 자주 이용되기는, 정신치료극의 방법과 기법이 개인, 집단, 및 가족 치료과정에 통합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심리적 기법들은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모든 관계상황에서의 정서적 갈등을 탐색하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이러한 정신치료극은 문제를 제시한 주인공뿐만

아니라 그 집단에 참여한 구성원에게도 좋은 치료적 경험이 될 수 있고, 구술적 표현이 어려운 아동이나 정신질환자, 문제아들에게 신체적 동작을 통해 신체적 언어로서 표현하도록 하도록 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정신치료극은 정서적 갈등을 명백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며, 잠재력(창의력, 자발성, 극적인 분위기 조성, 유모감각등) 발달에도 공헌하는 바가 크다(김유광, 1984).

한편, Kellermann(1985)과 김유광(1984)의 연구에 의한 정신치료극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첫째, 자기 이해 둘째, 대인관계 학습의 과정 부분인 정화 즉,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고 셋째, 다른 구성원들과의 상호학습을 통해 다른 구성원의 피드백(feedback)과 자기관찰을 통해 자신의 대인관계 양상에 대해 인식과 습득을 할 수 있게 되고, 넷째, 역시 구성원들과의 상호학습을 통해 외면적 대인관계를 학습하여 세련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여 표출하는 능력을 갖게되어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다. 다섯째로는 책임감, 자신감, 기본적인 고립감, 우연성,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과 집단 응집력을 키울 수 있게되어 자기개방, 위험감수등에 도움을 얻게 된다. 그 외 초기 가족구조의 특징을 반영하여,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들을 탐색, 도전의 기능을 통해 가족을 재정립할 수 있고, 이타심을 경험하면서 자존감이 증가하는 효과등을 보게 된다.

대학생들에게 적용된 정신치료극의 효과를 살펴본 것으로서 처음 4주까지는 대학생들이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나타냈으나, 11주(주당 2번씩, 75분씩)동안 실시한 결과 자신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자존감, 자신감, 자기 폐쇄성 등에서 변화를 보여주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Peter L. Kranz et al, 1988).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애착의 유형에 따라 대인관계와 자존감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 2. 애착

Ainsworth(1978)는 애착이란 어떤 특정한 즉, 애착 대상과 접촉하고 근접하려는 성향을 지속적으로 갖

고 있는 정서적 유대라고 정의하였고, 최근 연구에서 애착은 아동과 양육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감성적 혹은 정서적인 결속을 의미한다(Danuta Bukatko, Marvin W. Daehler, 1992).

애착에 관한 최근 연구자들은 애착이 단순히 신체적 접근을 유지하려는 것 뿐만 아니라 '안전을 느끼는 것'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좀더 확장시켜서 제안하고 있다(Bretherton, 1985; Sroufe와 Waters, 1977).

이러한 애착은 결정적 시기에 발전하는 것으로서 White와 Watts(1980)는 이시기를 생후10개월에서 18개월로 보고있다. 이시기에 관계성을 가질만한 기회가 박탈되면 애착현상은 소멸하게 되며, 결국, 적응장애, 인격의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 유아는 성숙해감에 따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타인에게 적절한 도움을 구하여 받을 수 있는 능력 사이에 균형적인 발달을 이루어 간다(Bowlby 1973).

즉,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또래와의 비교에서뿐 아니라 종단적 연구결과에서도 자신에 대한 신뢰감과 친밀한 대인관계(Sroufe, 1972),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능력의 발달을 초래하였다(Kalish & Knudston, 1976).

그외에 애착과 연결된 연구로 자녀가 부모를 분리된 개체로 지각하면서 동시에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인지하는 것은 자율성 발달과 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Grotevant & Cooper, 1982, 1985; Grotevant, Cooper & Hauser, 1984). 이것은 부모에 대해서 애착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자녀가 부모와의 공생적 관계에서 벗어나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갈등만을 다룬 분리이론에 대항하여 Bos(1978)에 의해 발달된 분리가 아닌 개별화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개별화란 이제까지 자신이 속해있던 관계적 맥락으로부터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지각하면서 자아정체감을 발달시켜가는 성숙의 한 과정으로서 내적지시, 자기규제, 자기책임의 능력 즉, 자율성을 발달시켜가는 과정이다(Branden 1983; Karpel, 1976). Bos에 의한 개별화는 청년후기와 성인초기에 자아통합이 이루어지며 이시기에 부모에게 의존하고자하면서도 동시에 독립

하고자 하는 양가적 감정이 감소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에 대해 White와 Speisman(1985)은 성숙된 성인자녀는 부모와 개별화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부모와 친밀하고 상호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부모와 자신의 다른점을 구분하여 수용,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Sullivan과 Sullivan(1980)은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잘되어 있으면 독립성의 성취도 높다고 보고하였다.

Ainsworth(1979)와 Sroufe(1979)에 따르면 유아는 안정-애착을 느끼게 하는 요인은 어머니의 민감성과 반응성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개념도 발달시키는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본적 인지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Main, Kaplan, Cassidy(1985)의 유아기-아동기-성인기 애착표상에 관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회상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Hazan과 Shaver(1987)는 Ainsworth(1978)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성인은 애정관계가 행복하고 다정하면, 서로 신뢰하고 상대방을 수용,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지각하였다. 그러나 회피적인 유형은 이성과 친밀해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고 정서적 감정이 극단적이었으며, 결합과 질투 심등이 높았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는 부모를 차갑고 거부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마지막 불안정한 애착유형은 부모에 대해 긍정적 감정이 회피유형보다는 많았으나 안정유형보다는 적었다(유은희, 1991 재인용).

Collins와 Read (1990)는 애착이란 아동이 성인이 된 후의 연애감정도 영향을 미치며 유아기의 불안-회피적이고, 불안-갈등적인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성인기에도 역시 불안과 갈등적인 연애감정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박은경, 1993 재인용). 즉, 유아기의 애착이 성인기에 형성되는 모든 인간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Kenny(1987)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낮은 학생은 대학생활이 외롭고 자신이 없으며 자기주장을 분명

히 하지 못하고 이성과도 친밀한 관계를 발달시키기가 어렵다고 보고하였으며, 부모에게 안정된 애착유형을 보인 대학생들은 자아존중도가 높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애착이 높다(Amsden & Greenberg, 1987). Kobak과 Sceery(1987)는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인 경우 적대감, 불안감이 적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며, 가족의 지지를 많이 받으나 안정적 애착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적대, 외로움이 높고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애착이 지나친 경우는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가족의 지지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결과에서, 유아 초기 형성된 애착이 아동기 때의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나, 독립성에 영향을 주고,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까지 그 애착이 지속되어져 대인관계와 자존감, 사회성, 연애의 감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3.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소수인, 특히 두사람 사이의 1대 1의 관계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안범희, 1979). Heider(1964)는 대인관계를 일반적으로 두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보고 개인이 타인에 대해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반응하며 어떻게 타인을 생각하고 그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가, 타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대한 심리적 지향성의 양식이라고 정의하였다.

K.Horney, E.Fromm, E.Erickson, H.S.Sullivan등 신프로이드 학파에 속하는 학자들은 대인관계는 문화적 소산이며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요인, 특히 가족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그 외 대인관계 이론중에서도 프로이드학파의 정신분석적 접근을 대표하는 입장으로 H.S.Sullivan의 대인관계 이론을 들 수 있는데, H.S.Sullivan(1940)은 성격자체를 대인관계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성격을 인간의 생활을 특징지우는 순환적인 상황의 비교적 영속적인 형태라고 하였다.

이렇게 대인 행동은 성격특성과 가정환경, 부모-자녀관계, 사회 문화적 배경등의 요인과 관계가 있

음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다(Baldwin, 1969 ; Breese, 1973 ; Kysar, 1978).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호작용하는 반응 양식을 배우고 이는 타인에 대한 반응의 잠재적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Hetherington, 1972).

Feeney와 Noller(1990)는 자아와 인간관계에 대한 일반적 과정을 다루는 모델들이 애착유형에 따라 다름을 발견하였다. 안정집단은 그들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더 신뢰를 하고 있었고 자신감이 높았으며, 애정 관계에서 다른 집단들보다 더 '성공적'이었다.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애착의 유형과 대인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안정집단은 더 표현적이고 전제적이었으며, 덜 냉담하고 덜 내향적이었다.

따라서 대인관계는 청년기 집단의 초기 애착상태를 외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정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에게 양육받은 애착유형을 살펴보고 또 그들의 대인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 개인의 감성순화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사회극을 실시하여 애착유형에 따른 대인관계에 변화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 1. 연구 문제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집단의 애착의 형태는 어떠한가?
2. 대학생집단의 애착유형에 따른 사회극은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가?
3. 대학생집단의 애착유형에 따른 대인관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 사회극의 효과는 지속적인가?  
를 알아보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 1) 사회극

본 연구는 사회극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극은 1995년 11월 6일부터 1995년 12월 18일까지 소

극장 '예'에서 6회 실시 하였고, 각 회마다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로 소요되었다. 사회극은 신경정신의학 전문의인 K선생님과 L교수님이 주지시자로서 극을 연출하였고, 주인공과 보조자아의 역할은 42명의 학생들이 하였다. 여기서는 빈의자 기법, 거울 기법, 마술가계 기법, 꿈의 기법, 역할 바꾸기 기법 등을 사용하였다.

## 2)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이 사회극이 실시되기전 대인관계와 애착에 관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 사회극이 끝나는 날 1차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사전과 비교할 수 있도록 같은 설문지로서 조사하였다. 그 지속성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1차 사후검증 후 2개월 뒤인 2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실험대상 42명에게 같은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중 35부를 2차 사후검증에 이용하였다. 또한 실험집단에 대한 사회극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같은 시기(1995년 11월 3일)에 같은 학교 대학생 100명을 통제집단으로 선정,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83부를 수거하여 사전검사에 이용하였고, 실험집단의 2차 사후검증 실시기간과 같은 시기(1996년 4월 9일)에 100부를 같은 통제집단에 실시하여 40부를 수거, 이를 사후검증에 이용하였다.

설문지 중 성인애착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 Collins와 Read (199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 진술 10문항과 부정적 진술 8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부정적인 문항 8문항(1,2,5,6,7,15,16,18)은 역산하여 채점하였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아주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이며 의존(1,2,3,4,5,6), 불안(7,8,9,10,11,12), 친밀(13,14,15,16,17,18)의 세차원으로 구성되어있다. Collins와 Read는 test-retest 신뢰도를 친밀, 의존, 불안에 대해 각각 0.68, 0.71, 0.52로 보고하였다.

대인관계 척도는 Carson(1969)의 대인관계 이론으로 이 재창(1981) 등이 재구성한 '대인관계 유형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지배(1,5,9,13,17,21,25,29), 복종(2,6,10,14,18,22,26,30), 친애(3,7,11,15,19,23,27,31), 적의(4,8,12,16,30,24,28,32)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전혀 없다(1)'에서 '항상 그렇다(5)'까지의 5점척도로서 총 32문항수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 척도는 장귀자(1973), 김남순(1977)등에 의해 타당도가 확인되었고 지배, 복종, 친애, 적의에 관한 각각의 신뢰도는 0.68, 0.64, 0.69, 0.56로 나타났다.

## 3. 연구 대상

본 연구는 18-25세까지의 남녀 대학생이 참여했는데, 18세 5명(11.9%), 19세 18명(42.9%), 20세 11명으로(26.2%), 21세 2명(4.8%), 22세, 23세, 24세는 각 1명씩(2.4%)이었고, 25세 3명(7.1%)으로 총 42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 중 남학생은 22명(55.4%), 여학생은 20명(47.6%)이었고 그 외 통제집단의 연구대상은 연령도 18-25세로 실험집단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1. 사회극의 내용

<1회 1995년 11월 6일>

1. 오리엔테이션 :사회극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함께 지시자와 학생들간의 인사를 나누었다.

2. 워밍업 :워밍업의 단계로서 6명이 무대위에 올라와 들려오는 음악의 상징을 개인 각자가 몸으로 표현해 보는 것과 6명이 함께 공격, 방어, 의존, 소외의 의미를 표현해 보았다.

3. 사회극 :역할 전환 기법, 독백,상황극등의 기법이 사용된다. :워밍업의 단계를 마치고 3쌍의 남녀가 부부로 구성되어 각각 자신들의 배우자에 대한 소개와 그들이 만남 경위와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사회극은 2가지 갈등상황으로 구성되었다. 첫번째, 부모와의 갈등으로 토요일 오후 부부가 오랜만에 외출을 약속해냈는데, 시골에 사는 부모님들의 느닷없는 출현으로 겪게 되는 부모-자녀간의 갈등이다. 두번째로 시부모와 며느리 자신의 사이에서 중간역할을 잘 해내지 못하는 남편에 대한 불만과 외출을 못하게 된 실망감으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이 초래된다.

4. 공유 : 아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더 있어야 한다는 점과 늙어서 자식의 집에 눌러왔으나 불쑥 찾아왔다는 이유로 눈치를 받는 부모님을 보면서, 또는 그 역을 하면서 비참함을 느끼게 됐고, 좀더 생활에 적극적이고 능력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기대한다는 의견이 토의되었다.

5. 노래부르기 : 무대 출연진들과 관중들 모두 노래를 부르면서 극을 마무리 하였다.

6. 소감 : 어떤 학생들은 아직 처음이고 낯선이들과 사회극을 하니 자신의 껍질을 다 벗어버릴 수 없는 자신의 비겁함이 조금은 아쉬웠다고 소감을 말하고 있으며 현실의 자신과 맡은 역할의 자신이 완전한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학생들은 사회극을 보면서 많은 부분을 공감한다고 하였다. 또한 역할 놀이등을 통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었고, 자신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하고 있다. 관객의 입장에서 바라본 학생들은 연기를 보다보니 그것이 바로 나의 문제였음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다.

**<2회 1995년 11월 13일>**

1. 위밍업 : 함께 노래부르기를 시작하여 상황극 (situation drama)을 실시 하였다.마술가계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이곳은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의 소중한 것을 팔고 다른 갖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는 가게이다. 여기서 주인공은 어릴적 자신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엄마처럼 돌봐주신 아주머니에 대한 기억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따뜻한 마음을 팔았다.

2. 사회극 : 마술가계, 역할전환과 빈의자, 이중자아, 꿈기법등을 사용하여 주인공 자신을 완전히 노출시켰다. :사회극에서는 여자에게 버림받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부모님께는 늘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들이 어머니를 도와드리지 않고 놀러만 다니는 여동생의 모습에서 분노를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어머니와 여동생, 오피의 역할을 바꾸어 가면서 각각의 입장을 이해하고 빈의자 기법을 사용하여 빈의자에 앉아있는 자신에 대해 좌절을 토로하면서, 결국, 자신감을 갖자라는 마음을 갖고 꿈에서 깨어나는 마지막 장면을 연출하였다.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새로 태어나는 꿈을 꾸었다'라는 말을 하였다.

3. 공유 : 여러 참가자들이 주인공을 둘러싼채 주인공을 바라보는 자신들의 관점을 서로 나누었는데 대체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자신을 가지라는 격려였다.

4. 노래부르기

5. 소감 : 솔직히 무대에 나가면 자신한테 솔직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나름대로 솔직했으며, 자신조차 몰랐던 자신의 속마음을 알수 있었고, 타인의 마음또한 알게 되니 가슴이 뿌듯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속에 잠재되어져 있던 표현하기 힘든 것들이 살아숨쉬는 듯하다고 말하면서 답답하던 마음이 확 뚫린듯 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반면, 이것은 단순히 연극이며 현실은 인간의 무한한 욕망과 꿈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부적 반응을 보이는 참가자도 있었다. 관객으로서 참가한 한 학생은 무대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말이 가슴에 와 닿으면서 자신한테 얘기하고 있는것 같아 조금 떨렸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또한명의 관객으로서의 참가자는 여전히 사회극이 자신에게는 어려우며 단지 약간의 흥미만을 줄 뿐 가슴에 와닿지 않고 조금 무섭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회극을 하는 곳이 멀어서 귀찮지만 꼭 필요한 수업을 들은것 같아서 좋다고 느낀점을 말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3회 1995년 11월 20일>**

1. 위밍업 : 무대에 올라가서 직접 주인공과 보조자아로서 역할을 한 참가자가 모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몸을 가볍게 풀면서 서로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름, 나이, 서클 활동, 학과 활동, 취미등)을 나누면서 시작되었다.

2. 사회극 : 무인도에 남자2명과 여자1명이 난파된 상황이었다. 먹을것도없고 단지 2인용 배를 만들 수 있는 재료만이 있었다. 이 상황에서 과연 그 3명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즉흥적으로 연기하였다. 그 시간은 10분 후에 물속에 가라앉기 때문에 남게되는 한명은 결국 죽을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동안에 유일한 한명의 여성이 스스로 남겠다고 자처하자 모두들 당황해 하며 오히려 왜

남편이 하느냐고 반박하는 사람과 잘됐다면서 어서 떠나자는 사람으로 나누어져 모두 그 여자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결국, 왜 죽느냐 그냥 두고 갈수 없다며 모두 그 섬이 가라앉음으로서 죽게 되었다.

3. 공유 : 모두들 그러한 극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선택한 그 여자에게 삶에 대한 희망을 주고 진실로 죽음이 앞에 닥쳤을 땐 그렇지 않다는 등의 이야기를 통해 왜 죽음을 택하려 하는지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했다.

4. 토론 : 관객으로 앉아있던 그 여자의 남자 친구는 그 여자를 이해할 수 있다며 개인적인 문제가 있음을 암시했고 참여했던 다른 남자는 진실로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 행복을 느낀다고 말했다. 관객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아픔은 희망의 지팡이일 뿐이라며 삶의 희망을 분돋아주려고 애썼다. 그 여자는 자신의 벽을 깨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아쉽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

5. 소감 : 삶에 대한 진지함을 가르쳐 줬다는 점이 좋다고 하였으며, 그 여자에 대해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답답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렇게 타인에게 이해를 얻지 못하는 그 여자의 친구만이 그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 〈4회 1995년 12월 4일〉

1. 워밍업 :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와 동물이 되어보았다. 그리고 엄마의 뱃속에 있을때부터 중·고시절, 대학시절, 결혼, 아이출산으로 인한 부모의 단계까지 과정을 표현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극에서의 현재 가정을 소개하였다.

2. 사회극 : 역할전환기법 등을 사용하였다. : 취업주부의 일과 가정(자녀)에 대한 갈등과 직장일, 술, 친구에만 매달려 지내는 남편과의 갈등을 그렸다. 아이가 갑자기 다쳐서 병원에 가게되는 상황을 통해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질책과 괴로움을 주게된다.

3. 공유 : 이번 사회극을 통해 아버지의 역할을 한 학생은 가정생활에 충실한 가정이 되고싶다는 말과 맞벌이 부부가 될 경우 부인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다짐했다. 아내의 역할을 한 학생은 모든 일에 대해 최고이고 싶으나 가정과 직장 모두를 하고 싶어하며

남편의 협조를 요구했다. 아이의 역할을 한 학생은 애정에 대한 갈망을 표현했고, 부모님이 서로 잘 지내셔야 마음이 편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 4. 노래부르기

5. 소감 : 결혼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나의 문제를 생각할 기회가 되었으며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았기 때문에, 잘 대처할 수 있을것 같다고 대답했으며, 현재 맞벌이 가정의 참여자는 왠지 엄마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말하고 있다. 또한 무관심한 아버지로 인해 가정의 갈등이 빚어졌다고 보고있으며 좀더 가정적인 아버지상을 그리고 있었다. 미래의 남편에게 서로 노력하자고 말하겠다고 하면서 직장여성에 대한 남편과 시부모님의 이해를 진지하게 당부 하였다. 한편 관객으로 참여한 한 학생은 무대위에 올라가 있는 학생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며 부럽다고 하면서 자신의 소극적인 행동에 해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또한 아직도 스스로 나서서 무대에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다소 달라진 자신을 느낀다는 학생의 소감도 있었다.

#### 〈5회 1995년 12월 11일〉

1. 워밍업 : 자신이 무대에 서도록 선택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같이 해봤고, 2명이 서로 불안에 대해 그 원인과 현상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2. 사회극 : 부모님과 아들, 아들과 여자친구의 관계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내용이였다. 빈의자기법을 사용하여 주인공의 감정을 표출시켜 자신을 보여주고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학3학년의 아들(21살)이 여자 친구와 결혼할테니 독립시켜달라고 부모님께 그 친구를 데려와 소개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부모님과 아들의 갈등을 그렸고 두번째 갈등으로서 이 아들과 여자 친구 사이에 과거의 여자친구를 만남으로써 믿음에 대한 확신이 깨어지는 갈등상황을 겪게 되었다. 결국 아들은 여자 친구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면서, 한 여인의 남자로서, 성인으로서 성숙되어야하는 자신을 느끼게 된다.

3. 공유 :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마냥 어려워보기만 했던 친구가 자신의 앞날에 대해 진진

한면을 보여주어 한층 성장한 느낌을 갖게됐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4. 노래부르기

5. 소감 : 우선 불안에 대해 말한 참여자는 무대에서 자신이 한 이야기에 대해 멋지다고 느끼고 있으며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것같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었다고 소감을 말하고 있으며 결혼에 앞서 자신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느꼈으며 속이 후련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관객으로 참여한 한 학생은 사회극에 대해 점점 진지해져 가는 자신과 참여자들의 모습에 감동받았고 자의식을 표출하고 미처 스스로 깨닫지 못한 마음 저 밑바닥에 고요히 잠겨있는 관념을 겉으로 표출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6회 1995년 12월 18일〉

1. 워밍업 : 유아로 돌아가 유아 놀이를 해 보았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고무줄 놀이들을 무대에서 직접하면서 고무줄이 올라감에 따라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그것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2. 사회극 : 공부에 적성에 맞지 않는 아들과 그에 대해 강압적으로라도 공부를 시키려는 부모의 갈등을 다루었다. 아들은 나쁜 친구들과 사귀면서 학교도 안가고 담배를 피우며 비행소년같이 되어가자, 부모는 그에 영향받는 여동생도 걱정하면서 아들을 때로 다스리게 된다. 이에 아들은 가출을 하여 해결적 상황으로의 진행이 연결되지 못하고(이것은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자의적인 진행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므로) 토론의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3. 공유 : 자식의 적성에 맞지 않는 것을 무조건 시키려는 것은 부모의 잘못된 행동이며, 문제자식 뒤에는 문제부모가 있다는 것을 동감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님에게 체벌의 방식보다는 사랑의 대화와 같은 방식을 자식된 입장에서 요구하기도 하였고 부모의 입장을 역할 놀이를 통해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았다고 소감을 이야기 했다. 또한 부부간의 자식의 교육에 대한 경향이 같아야 한다고도 하였다. 부인과 남편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양육태도를 보이면 자식은

혼란에 빠지기 쉽다고 하였다.

4. 노래부르기

5. 소감 : 아버지의 역할을 맡은 학생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고 말하였으며, 관객의 입장이던 한 학생은 부모님과 학교의 이해없는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들의 노력이 더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폭력은 절대 용납해선 안된다고 느낀점을 말하였다.

참가자들은 처음 1-2회에는 낯설고 어색함을 느끼면서 사회극이라는 것에 서서히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새로운 환경과 무대라는 거부감등이 이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데 있어서 장애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차차 익숙해지면서 극을 진행하는 주인공이나 보조자아 모두 그 역할에 진지하게 연기하였고 이를 지켜보는 관객 역시 그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다. 가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다루면서 미래에 자신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현실의 자신의 모습을 극에서 볼 수 있었다.

또한 부모님의 입장이 되어 역할연기를 할때는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상대방이 되어서 상대방의 생각을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 그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학교나 친구들에게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고 자신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극에서의 폭력적인 부모나 자신을 나쁜 길로 가게하려는 친구들을 통해서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며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야한다는 것과 좋은 부모 역할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맞벌이하는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등 보조자아들과의 연기를 통해 현실속의 자신의 부모와 친구와의 대인관계를 투사하여 문제점과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상은 사회극 실시 후 소감을 통한 변화를 살펴본 것으로 다음은 사회극 실시 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되었는가를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대학생집단의 애착유형 분류

대학생들의 애착유형을 살펴보기 위하여 Collins와 Read(1990)의 애착척도 18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형분류를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집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1〉).

실시 이후 불안감이 감소되어 안정된 정서상태를 보여주었다.

두번째 회피집단을 살펴보면 이들은 오히려 불안감이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집단의 선행연구(Hazan & Shaver, 1987)에 따르면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가까워지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고 타인을 완전

〈표 2-1〉 애착 유형 분류

유형	N. Cases	의존감M(SD)	불안감M(SD)	친밀감M(SD)
1 집단(불안형)	8 ( 19%)	19.25 (3.37)	20.87 (2.30)	19.25 (2.96)
2 집단(회피형)	4 ( 9.5%)	18.50 (2.38)	13.50 (1.29)	16.25 (1.50)
3 집단(안정형)	30 (71.4%)	18.20 (2.77)	14.36 (2.70)	22.56 (2.43)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첫번째, 높은 불안감에 비해 친밀감과 의존감이 적절한 수준의 집단은 불안 애착 유형(19%)이고 두번째, 세가지 변수 친밀감, 의존감, 불안감에 대해 모두 낮은 점수를 보여주는 집단은 회피집단(9.5%)으로 분류하였다. 세번째, 친밀감이 가장 높고 불안감과 의존감이 가장 낮은 집단은 안정 애착 유형(71.4%)이다. 이 연구집단은 안정형 집단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히 믿고 의지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등의 경향을 갖고있는 사람들로써 분류되어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감정을 쉽게 동화시키지도 내보이지도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치료극에 대한 선행연구(Peter L. Kranz, Kathleen M. Houser, 1988)결과는 11주가 지나야 치료적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히고 있어 이 집단의 6주간의 사회극을 통해서는 이제 막 자신을 드러낸 과정이라고 보여진다.

3. 각 애착변수별 사회극의 효과

각 애착변수에 따른 사회극의 효과를 paired t-test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번째 안정집단은 친밀감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Blos(1978)나 Grotevant와 Cooper (1982, 1985)의 연구로 청년기의 개별화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개별화라는 것을 가족 맥락에서 연

〈표 3-1〉 각 애착변수에 대한 사회극의 효과(사전검증과 1차 사후검증의 비교)

paired t-test	불안 집단		회피 집단		안정 집단	
	사전/사후 Mean.	t	사전/사후 Mean.	t	사전/사후 Mean.	t
의존감	19.25/18.88	.27	18.50/19.00	- .40	18.20/18.70	- .70
불안감	20.88/17.25	3.82 ***	13.50/18.25	-4.44 ***	14.37/15.27	-1.15
친밀감	19.25/18.75	.40	16.25/16.75	- .29	22.57/19.93	3.78 ***

\* P<.10 \*\* P<.05 \*\*\* P<.01

〈표 3-1〉은 사회극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각 애착변수에 대해서는 애착유형별 효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불안집단을 살펴보면 그들은 사회극

관성과 개인성간의 균형을 포함하는 것이며 연관성과 개인성을 함께 포함하는 개별화가 청년발달에서 역할 취득 기술과 정체감 발달에 유리하다고 발표하

였다. 즉, 이렇게 높은 친밀감을 보이던 집단이 다소 친밀감이 낮아졌다는 것은 개별화의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인 부모로부터 한 개인으로 거듭나는 정체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라 사료된다.

위의 결과에서 불안집단은 사회극의 효과로서 불안감이 감소되어져 안정적인 감정으로 변화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고, 회피집단은 사회극을 통해 오히려 더 불안하고, 자신을 드러내야함에 대해 심한 갈등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신을 드러내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이러한 집단에게 치료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1회의 사회극이 실시되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안정집단에 대해서는 친밀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사회극을 통한 부모와의 애착의 친밀도의 감소를 통한 청년들이 성인으로의 개별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여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각 애착과 대인관계에 대한 1차 사후검증

과 2개월 후의 검증인 2차 사후 검증과 비교를 통해 사회극은 어떠한 지속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표 3-2>와 같다.

위의 결과는 사회극의 지속적인 효과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서 사전에 비해 증가했던 회피집단의 불안감이 2차 사후 검증후 다시 감소하면서 사회극의 실시 이후 일상생활에 돌아와서 서서히 자신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극을 통해 타인에 대해 자신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쉽게 동화되지도 못했었기 때문에 쉽게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었으나 청년들의 성장과정을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을 갖게되어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여진다. 결국 이것은 회피집단의 특성상 뒤늦게 나타난 사회극의 지속적인 효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궁극적으로 사회극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증과 2차 사후검증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표 3-3>과 같다.

<표 3-2> 각 애착변수에 대한 사회극의 효과(1차사후검증과 2차사후검증과 비교)

paired t-test	불안 집단		회피 집단		안정 집단	
	1차/2차 Mean.	t	1차/2차 Mean.	t	1차/2차 Mean.	t
의존감	18.88/20.80	- .98	19.00/18.00	.49	18.70/19.48	- .96
불안감	17.25/16.80	.43	18.25/14.66	2.86 **	15.27/15.44	- .21
친밀감	18.75/19.60	- .89	16.75/19.66	-1.57	19.93/20.51	- .78

\* P<.10 \*\* P<.05 \*\*\* P<.01

<표 3-3> 각 애착변수에 대한 사회극의 효과(사전검증과 2차 사후검증의 비교)

paired t-test	불안 집단		회피 집단		안정 집단	
	사전/2차사후 Mean.	t	사전/2차사후 Mean.	t	사전/2차사후 Mean.	t
의존감	19.25/20.80	- .75	18.50/18.00	.23	18.20/19.48	-1.58
불안감	20.88/16.80	3.07 **	13.50/14.66	-1.10	14.37/15.44	-1.40
친밀감	19.25/19.60	- .25	16.25/19.66	-3.67 **	22.57/20.51	3.01 ***

\* P<.10 \*\* P<.05 \*\*\* P<.01

위의 결과에서 불안집단은 불안감이 감소되어 정서적인 애착의 안정감을 보여주었고, 회피집단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과정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고, 안정집단에 대해서는 고착되어 있던 부모에 대한 친밀감이 다소 줄어들어 한 성인으로서의 개별화되어져 가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 4. 애착유형별 대인관계에 대한 사회극의 효과

애착유형에 따른 대인관계의 변화를 paired t-test를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 않았다. 세번째 안정집단은 친구에 대한 친애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위의 결과에서, 불안집단은 친구에 대한 적의감의 증가를 통해 그리고 안정집단은 친구에 대한 친애의 감소를 통해 대인관계에 대한 사회극의 효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이 두집단에게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자신의 대인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회피집단은 사회극을 통해 대인관계의 변화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이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쉽게 타인과 동화되거나 어울어

〈표 4-1〉 애착유형별 대인관계(사전 검증과 1차 사후검증의 비교)

paired t-test	불안 집단		회피 집단		안정 집단	
	사전/사후 Mean.	t	사전/사후 Mean.	t	사전/사후 Mean.	t
부모에 의한 지배	9.25/10.75	-1.37	12.75/18.25	- .80	9.50/10.37	-1.10
부모에 대한 복종	10.63/12.13	-1.25	14.75/17.25	- .36	12.90/12.17	.74
부모에 대한 친애	14.13/13.13	.67	18.75/19.00	- .04	14.30/14.53	- .22
부모에 대한 적의	5.88/ 8.50	-1.83	10.00/15.75	- .73	7.20/ 8.70	-1.24
친구에 의한 지배	10.25/10.88	.57	15.75/16.50	- .08	10.07/10.60	- .96
친구에 대한 복종	9.25/11.13	-1.58	17.00/16.50	.05	9.93/10.20	- .46
친구에 대한 친애	15.63/14.0	.90	20.50/19.25	.16	14.50/13.10	1.95 *
친구에 대한 적의	7.38/11.0	-2.77 **	15.50/16.50	- .10	8.20/ 9.03	-1.22

\* P<.10 \*\* P<.05 \*\*\* P<.01

우선, 불안집단은 사회극 실시 이후 친구에 대한 적의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사회극 내용에 대한 감정입과 감정 표출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두번째 회피집단은 대인관계에 대한 아무런 변화를 보이

지 않는 소극적인 회피집단의 특성에 의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대인관계에 대한 사회극의 지속적인 효과를 살펴 보기 위해 1차 사후검증과 그 후 실시한 2차 사후검

증과의 비교를 해보았다. 여기서는 유형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애착유형별 대인관계 1차 사후검증과 2차 사후검증, <표 4-2>는 생략함).

사회극의 결론적인 효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대인관계에 대한 사회극의 사전검증과 2차 사후검증을 비교해본 결과 아무런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다(애착유형별 대인관계 사전검증과 2차사후검증, <표 4-3>은 생략함). 따라서 대인관계에 대한 1차 사후검증에서의 변화처럼 궁극적인 2차 사후검증의 변화를 초래하기 위해서는, 11주 이상의 사회극이 진행되어야 사회극의 치료적 효과가 있었다는 선행연구처럼 사회극의 횟수를 늘여서 검증을 해 봐야 할 것이다.

5. 통제집단과의 비교

다음은 실험집단의 사회극으로 인한 변화가 객관적임을 증명하기 위해 같은 시기에 조사한 통제집단의 각 애착변수에 대한 사전, 사후 비교 결과이다 (<표 5-1>).

<표 5-1> 통제집단의 각 애착변수에 대한 사전 사후 비교

t - test	사 전 / 사 후	t
	M.	
의존감	17.13 / 18.30	-1.61
불안감	15.93 / 14.70	1.64
친밀감	20.69 / 21.52	-1.44
부모의 지배	8.69 / 9.02	- .72
부모의 복종	11.96 / 12.35	- .85
부모의 친애	14.32 / 13.90	.76
부모의 적의	6.74 / 7.00	- .46
친구의 지배	10.36 / 10.40	- .09
친구의 복종	10.34 / 9.87	1.00
친구의 친애	13.38 / 13.65	- .59
친구의 적의	7.91 / 7.67	.49

앞의 실험집단에 대한 사회극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같은 시기적 간격을 두고 사회극에 대해서는 전혀 사전지식이 없는 같은

학교 대학생 100명에게 사전검사,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각 애착변수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통제집단의 어떠한 변수에도 사전과 사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주요 변수간 사전, 사후 비교에서도 역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실험논문의 가장 큰 문제점인 제한된 표집상의 문제점과 통제집단, 실험집단에 대한 외생변수의 통제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결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유아초기에 형성된 애착이 아동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이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까지 지속적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져왔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애착의 지속성에 대해 증명하기 위해 청년기나 성인기에 초점을 맞춰 애착을 다룬 논문이 부족할 뿐 아니라, 불안정하게 형성된 애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논문 또한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가정학의 가족치료적 부분으로서 사회극이나 정신치료극에 대해 다룬 가정학 내 논문은 더욱더 부족한 사항이기에 본 연구는 이러한 청년기 집단의 애착유형을 살펴보고 그들에게 사회극을 실시하여 그 유형별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집단의 애착유형은 불안, 회피, 안정 집단으로 분류되어 각각 19%, 9.5%, 71.4%로 비교적 안정적 애착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6회의 사회극은 부모-자녀간, 부부간, 형제간, 친구간에 일어날 수 있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역할 연기하여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봄으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새로태어난 느낌이라고 소감을 말하였다. 부모에 대한 이해와 함께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였다.

셋째, 애착변수에 대한 사회극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사회극 실시전, 1차 실시후, 2차 실시후검증 결과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즉, 불안집단에서는 사회극 실시전과 1차, 2차 실시후 검증시 불안감의 감소를 보여주어 안정된 정서상태로 변화 됐음을 보여주었고, 사회극에 대해 빠른 적응과 지속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회피집단에서는 이와 반대로 실시전과 1차 실시후검증 비교시 불안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타인에 대한 신뢰가 적고 자신을 개방하길 꺼리는 유형인 회피집단의 특성상 나타난 결과로 11주 이상의 사회극이 아닌 단 6회의 사회극이었기 때문에 아직 심리적으로는 갈등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 후, 사회극을 통해 타인에 대해 자신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쉽게 동화되지 못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었으나 얼마간의 기간을 거침으로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을 갖게되어 서서히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여진다. 결국, 이것은 회피집단의 특성상 뒤늦게 나타난 사회극의 지속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다음 사회극 후 안정집단은 친밀감의 감소를 보여주어 밀착되어져 있던 친구나 부모에 대해 친밀감이 다소 줄고 한 청년이 성인으로서 개별화 되어져가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넷째, 불안, 회피, 안정집단 별 대인관계에서는 유형별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불안 집단은 1차 사후검증에서 친구에 대한 적의에 대해 유의미한 증가를 보여주었고, 회피집단은 대인관계에 대한 아무런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으며 안정집단은 친구에 대한 친애에 유의미한 감소를 보여주었다. 이는 사회극 후 다소 대인관계에 변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사회극의 효과의 대한 객관적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통제집단에 대해 사전, 사후 비교를 해본 결과 통계적 의의가 없었다.

이상 이 연구는 사회극이 애착 유형에 따라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밝혀 문제 해결중심의 사회극의 효과를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애착유형에 관한 질문을 질문지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의도나 개인적 반응을 잘못 해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질문지법 뿐 아니라 면접법이나 관찰법등을 첨가시켜 유형을 분류한다면, 유형분류상의 오류를 최대한 줄일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사회극에서의 참여자는 소수의 자발적 참여자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본 논문의 결과가 일반화되는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후속연구에서는 사회극의 횟수를 10회이상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더 확실히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포함한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연구하여 연구의 정확성을 저해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어머니, 아버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연구를 실행해야 할것이다.

사회극이나 정신치료극의 시행이 학과내 Curriculum으로서 자리잡는다면, 가정학이 가족치료분야에 실용적 학문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할 뿐 아니라 가족의 문제 발견과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적 성장과 가족의 문제해결을 도와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1)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 Ⅲ 아동학, 가정학 (1990) 대한가정학회편. 교문사.
- 2) 고경애(1984). 모자녀 애착관계가 유아의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김민정(1996). 심리극을 통한 사회성과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유광(1987). '정신과 환자에 대한 정신치료극의 치료적 효과' 고려대 의과대학 박사학위논문.
- 5) 김유광, 김혜남(1986). '정신치료극이 정신과 입원 환자의 자기 및 타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vol.25, NO.4, 727-737p.
- 6) 김유광(1979. 1980. 1981). '정신질환에 대한 심리극의 효과', 중앙의학, Vol 35, 38, 40.

- 7) 김유광(1986). '사이코 드라마의 준비작업' 임상예술 Vol.2, 37-46p.
- 8) 김향숙(1996). 어머니의 자녀양육태도와 유아의 애착유형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김희경, 이정숙(1990). 『문제아 임상심리학』 교문사.
- 10) 김희경, 이정숙(1990). 『심리요법의 기술』 교문사.
- 11) 박상미(1992). 심리극을 통한 집단 상담에서의 공격성과 자아개념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박은경(1993). 애착유형이 자존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대 석사학위논문
- 13) 박은숙(1983). 한국유아의 애착발달 현상에 관한 연구-서울 아파트 지역과 제주농촌 지역 유아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21(2), 117-127p.
- 14) 윤승경(1988). 청년기 자녀의 애착과 독립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이근후(1977). 「연극의 정신과 치료도입을 위한 시설」 논총19 211-20.
- 16) 이근후, 임계원 역(1988). 『사이코 드라마』 하나의학사.
- 17) 이대회, 김유광, 박경우(1982). 과거 10년간 국립정신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통계학적 고찰 III, 임상연구 논문집, 국립정신병원, 327p.
- 18) 이병윤, 서광윤, 송수식, 김행숙(1984). 『현대 정신의학 각론 II』 일조각, 서울.
- 19) 이정숙(1991).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년기 자녀의 갈등.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 임계원(1981). 정신과 환자의 심리극치료 효과에 대하여, 신경정신의학, 20, 288-299.
- 21) Ainsworth, M.D.S.(1969). Object relations, dependency, and attachment: A theoretical review of the infant-mother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40, 969-1025.
- 22) Ainsworth, M.D.S. & Bell, S.M.(1970). Attachment, exploration, and separation : Illustrated by the behavior of one-year-olds in a strange situation. *Child Development*, 41, 49-67.
- 23) Armsden, G. C & M. T. Greenberg(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16(5), 427-453.
- 24) Bartholomew, K & Horowitz, L.M(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25) Bretherton, I.(1987). New perspectives on attachment relation : Security, communication, and internal working models. In J.D. Osofsky(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2d.).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26) Collins & Read(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vol 58.No 4.
- 27) Danuta Bukatko, Marvin W.Daehler(1992). *Child Development- ATropical*, Houghton Mifflin Co., 19. 425-443.
- 28) Feeney, J.A & Noller, P(1990). Attachment styles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81-291.
- 29) Grotevant, H., & Cooper, C(1985). Patterns of interaction in family relationship and the development of identity exploration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6, 415-428.
- 30) Hazan, C & Shaver, P(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31) Hendrick, C. & Hendrick, S.(1989). Research on love : Does it measure 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784-794.
- 32) Kellerman, P.(1984). Participant's perception of therapeutic factors in psychodrama J. of Group

- Psychotherapy, Psychodrama & Sociometry 38. 123-132.
- 33) Kenny, M & Donaldson, G.A(1991). Contributions of Parental Attachment and Family Structure to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4), 479-486.
- 34) Kobak, R.R & Sceery, A.(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35) Main, M., Kaplan, N., & Cassidy, J.(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209.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36) Moreno J. L.(1946, 1959, 1969). 'Psychodrama' Volume I, II, III, New York, Beacon House,
- 37) Moreno J. L.(1953). 'Who shall survive?' Volume I, II, III, New York, Beacon House.
- 38) Moreno J. L.(1956). 'Group Psychotherapy' Psychodrama in Action. A motion practice, Vol. 18, 87-117.
- 39) Sroufe, L.A & Waters, E.(1977). Attachment an organizational construct, *Child Development* 48, 1184-1199.
- 40) Sullivan, H. S(1950). 'Conceptions of intensive psychotherapy', Chicago University Press, Chicago.
- 41) Sullivan, K & Sullivan, A.(1980). Adolescent-parent sepa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16, No.2, 93-99.
- 42) Wynne, L.(1984). The epigenesis of relational systems : A model for understanding family development *Family Process*, 23(3).
- 43) White. B. L & Watts. J. C.(1980). The critical period of development, In D.Rogers (Ed). *Issues in life-span human development*(pp.50-54). Monterey, C. A. :Brooks/Cole Publishing Co.